K-방산, 급성장에도 中企 조달 4514억→3593억 '뒷걸음'

韓 무기점유율 2.2%로 세계 10위
방산기업 매출 20.2조·영업익 9.2%
대기업 순익 935%↑… 中企 61%
방산 매출 中企 비중 19.2% 수준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은 23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기부

'K-방산'의 몸집이 커지고 전 세계 시장에서 위치는 높아지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방산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한국의 세계 무기시장 점유율은 2008년 0.5%에서 2020~2024년에는 평균 2.2%까지 올라가면서 세계 10위에 올라섰다. 우리나라 방산기업 매출은 2020년 당시 총 15조3000억원 수준에서 2023년에는 20조2000억원까지 성장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률도 3.7%에서 9.2%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방산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은 갈수록 쪼그라 들고 있다.

국방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은 2022년 당시 4514억원이던 것이 2024년에는 3593억원으로 줄었다. 전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매출은 44.2%이지만 방산만 놓고보면 19.2%로 전체 평균에 한참 못미치고 있다. 수출 비중 역시 전산업에선 중소기업이 17.4% 수준이지만 방산분야에선 3.9%에 그치고 있다.

특히 2019년 대비 2023년 현재 방산기업 순이익은 대기업의 경우 1488억원에서 1조5398억원으로 935%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1195억→1928억원으로 61% 늘었다.

중기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방산 분야의 경우 최종 수요처인 군 정보 접근이 어렵고 소수 지정된 기업이 공급을 주도하는 생태계에서 혁신 스타트업의 신규 진입도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폐쇄적 산업구조 속에서 성장 성과는 일부 대기업에 편중되고 있어 지속가능한 K-방산 성장을 위해선 방산 중소기업, 스타트업 육성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중기부와 방사청이 이날 발표한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에 따르면 방산 대기업과 중소기업 영업이익률 등 격차 완화를 도모하기 위해 방산 분야에서 상생수준평가와 수위탁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상생수준평가의 경우 올해에는 15개사를 대상으로 방산 분야 실적을 중점 조사한다. 여기에는 한화오션, 현대로템, LIG 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효성중공업, 풍산, 현대위아, LS엠트론, SK오션플랜트, 두산에너빌리티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상생 우수 기업에는 원가산정, 수출 절충교역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 등을 추진할 때 성과공유계약을 체결해 적정 이윤을 보장한 기업에는 방산 지원사업 참여를 우대한다.

방산 참여 중소기업·스타트업도 대기업과 대등하게 방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첨단산업분야 기술·제품 보유기업을 '방산혁신전문기업'으로 지정해 무기체계 개발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개발 단계부터 군·체계기업과 협업해 군 소요에 기반한 기술검증, 연구개발(R&D), 양산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 방산 스타트업 R&D 지원을 강화한다.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 1곳을 가칭 'K-방산 스타트업 허브'로 지정해 방산·창업 지원의 오프라인 지원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첨단 분야 스타트업이 제조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스타트업 기술력과 방산 제조 중소기업의 M&A를 적극 지원한다.

지역 특화 산업 및 조선 산업과 연계해 클러스터를 신규 지정,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타이어업계, 해외 거점 강화로 질적 성장 '승부'

북미 리스크 대응 공급망 경쟁력 강화
유럽 신공장 시험센터 현지화 전략
고인치 전기차 타이어 생산 확대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한 국내 타이어 3사(한국타이어·금호타이어·넥센타이어)가 질적 성장을 위해 해외 생산 거점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타이어 업계는 통상 리스크로 북미시장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한 만큼 유럽, 중남미, 중동 등으로 공급망을 확대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미국 테네시 공장 증설을 마무리하며 북미 시장 대응력을 높였고, 금호타이어는 폴란드 신공장 건설을 확정하며 유럽 시장 공략에 힘을 싣고 있다. 체코 공장 증설을 마친 넥센타이어는 가동률을 끌어올리는 한편 현지 공략을 위한 제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북미와 유럽 현지 생산량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유럽 헝가리 공장의 생산능력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부터 테네시 공장에서 연간 100만개, 2027년부터 헝가리 공장에서 연간 80만개의 트럭·버스용 타이어를 추가 생산할 수 있다.

또 유럽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최근 헝가리공장의 연간 전력 사용량의 약 2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해 글로벌 재생에너지 전문 기업 '골든픽스 캐피탈(GPC)'과 10년간 총 430GWh 규모의 장기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했다.

유럽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넥센타이어는 현지화 전략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넥센타이어는 핀란드 이발로에 위치한 겨울용 및 사계절 타이어 시험 센터인 '퍼플 스노우 이발로 센터'를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시험 센터는 유럽 최북단 북극권 인근 핀란드 이발로의 UTAC 주행 시험장 내에 조성됐다.

넥센타이어는 이번 핀란드 시험센터 가동으로 매출액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시장인 유럽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는 겨울철 3PMSF(Three Peak Mountain Snowflake) 인증 제품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어, 겨울용 타이어에 대한 기술 대응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북유럽 등 혹한 지역의 빙판길 주행을 위한 겨울용 타이어(스터드 타이어)의 내구성 평가 시험 트랙도 확보해 유럽 현지 겨울용 타이어 수요 증가에 더욱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폴란드에 연산 600만개 규모의 타이어 신공장 건설로 유럽 공략의 거점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금호타이어는 2028년 8월 가동을 목표로 총 5억8700만달러(약 8600억원)를 투입한다. 또 중국·베트남 공장 증설로 글로벌 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w@

볼보, 플래그십 라인업 '럭셔리' 강화로 입지 굳힌다

S90·XC90 하반기 판매 급증세
주행감·편의사양 대폭 강화
Car UX로 디지털 경험도 확대

볼보자동차코리아 플래그십 SUV XC90(왼쪽, 플래그십 세단 S90.

볼보자동차코리아의 플래그십 라인업인 'S90'과 'XC90'이 상품성 개선을 거치며 수입차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지고 있다.

23일 볼보자동차코리아에 따르면 볼보 S90과 XC90은 지난해 하반기 기준 상반기 대비 판매량이 각각 57.5%(415대), 95.5%(588대) 성장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상품성을 대폭 강화한 신형 모델을 출시한 후 실제 판매 증가로 이어지는 성과를 만들어내며 플래그십 시장에서 여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우선 주행 감성과 편의사양을 과감히 확대한 것이 판매 성장을 이끌었다. 플래그십 세단 S90은 기존 최상위 트림에만 적용되던 후륜 에어 서스펜션을 주력 모델인 B5 울트라 트림까지 확대했다. 5090㎜의 전장과 3060㎜의 휠베이스가 편안한 거주성을 제공한다.

스칸디나비아 디자인 철학을 바탕으로 한 외관과 실내는 절제된 고급스러움과 실용성을 동시에 구현한다. 또 고품질 소재로 조합한 실내 공간은 '스웨디시 리빙룸' 콘셉트를 반영했다.

플래그십 SUV인 XC90도 상품성을 대폭 강화하며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최첨단 안전 기술, 최상의 편의 사양 등을 하나의 패키지에 담아 볼보자동차가 정의하는 '스웨디시 럭셔리 플래그십'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

새로운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와 범퍼, 보닛 디테일 수정을 통해 시각적 완성도를 높였다. B6 울트라 트림에 에어 서스펜션, 초당 500회 노면을 모니터링하는 액티브 섀시 기술을 기본 탑재해 주행 안정성과 안락함을 확보했다.

실내에는 재활용 폴리에스터 등 친환경 소재를 활용하고 텍스타일과 우드 데코, 향상된 앰비언트 라이트 등 고품질 소재를 결합해 안락함을 구현했다.

디지털 커넥티비티를 디지털로 진화시킨 점도 눈에 띈다. 볼보는 두 차량 모두 차세대 사용자 경험인 '볼보 Car UX'를 기본 탑재했다. 11.2인치 독립형 센터 디스플레이로 조작 편의성을 높였다. /양성운 기자

한진
에너지 물류시장 공략
배터리·신재생 운송 경쟁력 강화

한진이 이차전지를 비롯한 에너지 특화 물류 시장 추가 공략에 나섰다. 23일 한진에 따르면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로부터 리튬 배터리 항공운송 품질인증(CEIV Lithium Batteries)을 획득하며 글로벌 수준의 안전 관리 체계를 공인받았다. 이러한 전문 실적과 인증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수입부터 국내외 운송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고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안전한 SCM 솔루션을 제공하는 토대가 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24년에는 1800t에 이르는 이차전지 핵심 연료 리튬염 생산을 위한 '리튬염 제조설비 모듈' 운송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대형 배터리 소재 설비 물류 부문에서 노하우를 입증하기도 했다. /김승호 기자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얼음정수기'
하루 최대 약 1000개 얼음 생성

삼성전자가 하루 최대 8kg의 강력한 제빙 성능에 AI 기반 사용자 맞춤 기능을 갖춘 얼음정수기 신제품을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비스포크 AI 얼음정수기'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하루에 최대 약 1000개의 얼음을 만들 수 있으며, 이는 무게로 8kg에 달한다.

'비스포크 AI 얼음정수기'는 미국국가표준협회(ANSI)가 공식 승인한 정수기·음용수 실험 기관인 NSF 인터내셔널(이하 NSF)에서 공식 인증을 받은 '4단계 필터 시스템'을 적용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에코프로에이치엔
친환경 선박 기술 확보
MW급 암모니아 엔진 정화 시스템 개발

에코프로에이치엔이 메가와트(MW)급 암모니아(NH3) 선박 상용화를 위한 배기가스 정화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며 차세대 친환경 선박 시장 선점에 나섰다. 에코프로에이치엔은 HD한국조선해양, 한국선급과 함께 MW급 암모니아 엔진 정화 시스템 개발에 성공하고 기술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발은 2023년 해양수산부의 '선박배출 온실가스(GHG) 통합관리 기술개발' 국책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에코프로에이치엔은 촉매 반응기 설계와 촉매 활성 온도 최적화, 배기가스 정화 성능 개선 등 후처리 시스템의 핵심 기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며 '마이크로웨이브(전자파) 촉매 가열 배기가스 후처리 시스템'을 완성했다.

/원관희 기자 wkh@